

애경유화·한국타이어 분할 재상장

한국타이어와 애경유화가 주권 재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제조부문을 인적 분할해 신설된다. 존속회사는 상호를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로 변경하고 지주회사로 남게 된다.

분할기일인 9월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소유주식 1주당 0.8139505주의 비율로 신설회사 주식이 배정된다.

최대주주인 조양래(15.99%) 외 특수관계인이 지분 40.83%를 소유하게 된다.

애경유화는 제조부문을 인적분할해 신설되며 존속회사는 상호를 AK홀딩스로 변경해 지주회사로 남는다.

분할기일인 9월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소유주식 1주당 0.36주의 비율로 신설회사 주식이 배정된다.

채형석(9.91%) 외 특수관계인이 40.96%를 소유해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6/08>